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IT기반 사회의 가정생활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곽미정*, 김영미**

A Study of Influence on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 Focusing on Strengths of Family Life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in the IT-based Society

Kwak Mijung*, Kim Youngmi**

요 약 본 연구는 IT기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가정생활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가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청소년환경의 주된 생활공간인 가정과 학교의 관련요인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부산의 K인문계 고등학교 25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의 가정에서의 시간공유는 청소년들의 긍정적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유대감은 청소년들의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및 개인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정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만족은 환경에 대한 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만족은 심리적 안녕감의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 및 삶의 목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교우관계는 심리적 안녕감의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자율성 측면에, 수업일반은 심리적 안녕감의 자율성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가정생활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요인들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청소년정책의 방안에도 고려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가정생활 건강성, 학교생활 만족도, IT기반사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influence of strengths of family life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on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particularly targeting at high school students in the rapidly changing IT-based society.

In order to investigate influence of factors related to home and school as the main living spaces on improving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a survey of 251 students at K academic high school in Busan was conducted and the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Firstly, the analysis showed that adolescents' sharing time at home could make a positive impact on their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t also showed that family bonds c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adolescents'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goal of life, and personal growth, and thus satisfaction in communication at home was a factor that could be helpful to environmental control. Secondly, it indicated that adolescents'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was a factor that had a positive impact on self-acceptance, environmental control, and the goal of life among the sub-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t turned out that peer relationships c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likewise school lessons and peer relationships c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autonom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factors related to strengths of family life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could affect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Therefore, these findings can be applied to establishing major youth policy.

Key Words :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strengths of family life,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IT-based Society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상명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3년 2월 6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3년 2월 28일, 확정일: 2013년 3월 20일

1.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이며 인간의 어떤 발달 단계보다도 많은 중요성을 내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과다한 과업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23].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있어 심리적 안녕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심리적 안녕감은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에 주요한 지표로 작용하므로 그 자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긍정적인 결과에 공헌하게 되므로 더욱 의미가 있다[29]. 심리적 안녕감이란 일상생활의 사건에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느끼는 정서이며, 환경의 자극이나 개인의 반응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개인이 지각하는 총체적 감정을 의미한다[28][31].

그런데 청소년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2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IT기반의 급속한 사회변화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체계를 중심으로 가정생활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가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므로, 청소년들의 삶이 제 1차 사회화기 관련 가정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23]. 또한 학교는 가정으로부터 교육기능의 전달을 부여받은 기관으로써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장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결정하게 될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많은 영향을 받는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건강’의 구성요소인 유대감, 시간공유, 의사소통, 위기대처능력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구성요소인 수업, 교사 및 교우관계, 물리환경, 학교행사, 학교생활전반의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 가운데 특히 입시와 진로준비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계획과 입시준비에 치중된 고등학생들의 생활공간에 대한 이해 및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미국의 청소년들보다 낮다는 연구

가 있다[19][26].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주요한 생활공간인 미시체계의 환경요인이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가 주로 대학생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이론적 배경

2.1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에 관한 논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학문적 언급은 ‘긍정적 정신건강(positive mental health)’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Jahoda(1959)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이를 구성하는 6가지 하위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수용, 성장을 향한 노력과 자기실현, 성격의 통합성, 사회적 압박으로부터의 자율성, 현실의 정확한 지각, 환경의 통제능력이다. 그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이상적인 정신건강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 이후 Ryff와 그의 동료들은, Jahoda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 Maslow, Rogers, Jung, Allport & Erikson의 주장을 통합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개념적으로 정의하였다[31][32][33][34][35].

Ryff와 Keyes(1995)는 심리적 안녕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즉, 심리적 안녕감이란, 일상생활의 사건에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느끼는 정서이며, 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 혹은 환경의 자극 및 개인반응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개인이 지각한 행복감 혹은 총체적 감정을 의미한다. 이후 Ru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이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첫째, 자아수용(self-acceptance), 둘째, 긍정적인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셋째, 자율성(autonomy), 넷째, 환경에 대한 통제(enviromental mastery), 다섯째, 삶에 대한 목적(purpose in life), 여섯째, 개인적인 성장(personal growth)이다. 이에 따르면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이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조절능력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 및 삶의 목적을 통하여 스스로 잠재력을 실현시키고자하는 동기를 지닌 사람

을 말한다[4]. 이와같은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은 기존의 주관적 안녕감이 심리학 이론의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심리적인 기능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1][3].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국내연구를 특성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즉, 개인의 내면적인 심리특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6][7][8]와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와 개인의 사회적 특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있다[3][9][16][17][18].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정생활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를 구성하는 세부요인들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에 있다.

2.2 청소년들의 가정생활건강성과 학교생활 만족도

김경아에 의하면 가정이란 공동의 주거, 경제적인 협력 및 생식 등의 특성을 갖는 사회조직으로써, 초기 사회화의 바탕이 이루어지며 정서적인 안정과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곳이라고 보고 있다[2]. 또한 가정은 개인생활의 기초로써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사회생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의 경험 이 가족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Yoshikawa(1999)는 복지제도의 변화 속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9].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더불어 가장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은 바로 학교 공간이다. 학교는 가정과 함께 주된 생활영역이며 사회적, 지적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장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결정을 하며 교사와 친구관계를 통해 사회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 개인의 학교적응은 심리적인 정서의 상태와 연관이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있다 [17][18][19].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의 여러 세부적인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 뿐 아니라 입시 및 진로준비로 고등학생들에게 중요한 생활공간인 학교의 요인 가운데 학교생활만족의 세부요인이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가정생활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한 경험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년기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의 시기를 본 논문의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고등학생들은 입시준비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제한된 생활공간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미시체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부산의 K인문계 고등학교 1, 2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 10월 15일부터 2009년 10월 20일까지 6일간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에 참여한 부산의 K고등학교는 남학생으로 구성된 학교이며, 구체적인 설문조사인원은 1학년 학생 141명 (56.2%), 2학년 학생 110명(43.8%)의 총 251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기상 입시를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고 3 학생들은 설문조사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이외의 학급 중에서 설문참여의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설문에 앞서 지도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문응답방법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값을 통하여 산출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설문자료의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13.0을 사용하여 통계적인 자료처리를 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법으로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이 사용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고등학생들의 가정생활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이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2 연구도구

3.2.1 독립변수의 측정

3.2.1.1 가정생활건강성

건강한 가정이란 Pratt(1976)에 의하면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규칙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가족원에게 개별성과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10]재인용). 그러므로 이를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로 삼았으며 가정생활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하였다[2].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척도의 하위구성요인에 따라 4개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써 각각의 질문은 7-9문항

으로 구성되어있다. 즉 가족의 화목 및 서로에 대한 충실, 친근감 등을 질문하는 ‘가족유대감’과 가족단위의 여가생활과 공동의 관심사 및 함께 보내는 시간의 유익성 등을 묻는 ‘시간공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정도, 수용 및 타협의 정도, 솔직성의 정도를 질문하는 ‘의사소통’, 및 위기문제에 당면한 상황에서의 태도, 인내심, 해결노력, 자원공유 등을 질문하는 ‘위기대처능력’의 4가지 하위요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들 각각의 질문 문항들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3.2.1.2 학교생활만족

학교생활이란 학교에서 학생이 받는 교육적 영향의 총체를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비교육적인 영향도 학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24].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를 학생들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교사 및 학생들과 잘 조화되는 만족스러운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24]. 본 연구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김영훈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참고로 하였다. 이에 따른 세부문항은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즐거움과 만족성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학교생활’의 항목과, 수업에 대한 흥미와 유익성을 질문하는 ‘수업일반’, 그리고 교사와의 친밀도 및 이해도를 묻는 ‘교사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우와의 관계 및 반에 대한 소속감을 포함하는 ‘교우관계’와 공부하는 특정시설의 환경 및 학교 주변 환경에 관한 만족을 측정하는 ‘물리환경’, 그리고 학교의 대외행사나 특별활동참가를 질문하는 ‘학교행사’의 항목으로 측정도구가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항은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2.2 측정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척도를 토대로 표본의 신뢰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값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가정생활건강성은 .971, 학교생활만족도는 .876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은 .878의 값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각각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표본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생활건강성의 유대감은 .964, 시간공유 .901, 의사소통 .921, 위기대처 .913이다. 학교생활만족의 하위

요인에 대한 신뢰도분석은, 학교생활전반 .851, 수업일반 .656, 교사관계 .692, 교우관계 .747, 물리환경 .708, 학교행사 .661이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으로써 자아수용은 .762, 대인관계 .853, 자율성 .573, 환경통제 .593, 삶의 목적 .781, 개인성장 .684이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1> 표본 집단의 신뢰도 검증

구분	신뢰도(Cronbach’s Alpha)
유대감	.964
가정생활	.971
시간공유	.901
건강성	.921
위기대처	.913
학교생활	.851
수업일반	.656
학교생활만족	.876
교사관계	.692
교우관계	.747
물리환경	.708
학교행사	.661
자아수용	.762
대인관계	.853
심리적 안녕감	.878
자율성	.573
환경통제	.593
삶의목적	.781
개인성장	.684

3.2.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설문조사인원은 1학년 학생 141명(56.2%), 2학년 학생 110명(43.8%)의 총 251명이다. 학교생활만족의 하위요인에서는 교우관계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리환경이 2.6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정생활건강성의 설문응답에서는 하위요소 중 유대감이 3.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공유가 3.2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특성상 가족과의 시간공유의 측면은 낮지만 유대감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인에 관한 측정에서는, 대인관계가 3.58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고 그 다음이 개인성장 3.39, 삶의 목적 3.27, 자아수용 2.96, 환경통제 2.8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다음의 <표 2>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구분	N	Minimum	Maximum	M	SD
가정 생활 건강성	251	1.00	5.00	3.96	.75
유대감	251	1.00	5.00	3.20	.86
시간공유	251	1.10	5.00	3.31	.72
의사소통	251	1.00	5.00	3.51	.72
위기대처	251	1.00	5.00	3.18	.93
학교 생활 만족	251	1.00	5.00	2.96	.76
학교생활	251	1.00	5.00	2.82	.90
수업일반	251	1.00	5.00	3.61	.83
교사관계	251	1.00	5.00	2.64	.86
교우관계	251	1.00	5.00	3.10	.90
물리환경	251	1.00	4.50	2.96	.59
학교행사	251	1.43	5.00	3.58	.69
자이수용	251	2.00	4.63	3.08	.44
심리적 자율성	251	1.50	4.00	2.86	.44
안녕감	251	1.00	5.00	3.27	.68
삶의목적	251	2.25	5.00	3.39	.54
개인성장					

4. 연구결과

4.1 가정생활 건강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정생활건강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즉, Tolerance값은 모두 0.1이상이고, VIF값은 모두 10.0이하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 건강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의 유대감이 유의수준 0.1%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생활건강성이 심리적안녕감의 자이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정생활 건강성이 긍정적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유대감은 유의수준 0.1%에서, 시간공유는 유의수준 5%에서 긍정적 대인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Beta값을 살펴보면, 유대감이 시간공유보다 긍정적 대인관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가정생활건강성이 심리적 안녕감의 환경에 대한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의사소통의 요소가 유의수준 0.1%에서, 환경에 대한 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정생활건강성이 심리적 안녕감의 삶의 목적의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대감이 유의수준 5%에서 삶의 목적에 정(+)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정생활 건강성이 심리적 안녕감의 개인적인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생활건강성의 하위요소의 유대감은 유의수준 1%에서 개인적 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가정생활의 유대감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의 대인관계, 삶의 목적, 자율성 및 개인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고등학교생들의 환경적 요소로서의 가정생활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의 의사소통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환경에 대한 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은 고등학교생들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고등학교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의 <표 3>과 같다.

4.2 학교생활 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교생활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Tolerance값과 VIF값을 분석한 결과, Tolerance값은 모두 0.1이상이고, VIF값은 모두 10.0이하로써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이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에서는, 학교생활만족이 유의수준 0.1%로써 자이수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정생활 건강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독립변수 (가정 생활 건강성)	종속 변수 (심리적 안녕감)	B	Beta	R ²	F	t
(Constant)		2.436				19.238
유대감	심리적 안녕감	.190	.378			4.124***
시간공유		-.076	-.175	.141	10.103***	-1.920
의사소통		.032	.062			.565
위기대처		.040	.077			.782
(Constant)		1.837				9.082
유대감	자아수 용	.132	.166			1.790
시간공유		.030	.043	.116	8.058***	.469
의사소통		.061	.074			.666
위기대처		.141	.171			1.716
(Constant)		2.532				10.553
유대감	긍정적 대인관 계	.341	.367			3.900***
시간공유		.160	.199	.095	6.472***	2.126*
의사소통		.037	.038			.343
위기대처		.026	.027			.265
(Constant)		3.002				18.993
유대감	자율성	.129	.219			2.244*
시간공유		-.027	-.053	.025	1.557	-.544
의사소통		-.108	-.177			-1.517
위기대처		.004	.007			.070
(Constant)		2.431				15.960
유대감	환경에 대한 통제	.027	.046			.484
시간공유		-.070	-.138	.076	5.079**	-1.463
의사소통		.252	.417			3.677***
위기대처		-.083	-.137			-1.348
(Constant)		2.023				8.666
유대감	삶의 목적	.281	.308			3.303**
시간공유		-.068	-.086	.111	7.691***	-.932
의사소통		-.012	-.013			-.117
위기대처		.114	.120			1.199
(Constant)		2.788				14.576
유대감	개인적 성장	.231	.318			3.319**
시간공유		-.103	-.163	.060	3.952**	-1.712
의사소통		-.036	-.048			-.422
위기대처		.040	.052			.509

* : p<.05, ** : p<.01, *** : p<.001

또한 학교생활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의 긍정적인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우관계가 유의수준 1%에서 긍정적 대인 관계에 정(+)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학교생활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학교생활만족의 수업일반과 교우관계가 유의수준 5%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자율성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값을 살펴보면, 학교생활만족의 하위요소 중에서 수업일반이 교우관계보다 심리적 안녕감의 자율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학교생활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의 환경에 대한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교생활만족이 유의수준 1%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환경에 대한 통제에 정(+)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생활만족이 삶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이 유의수준 5%에서 삶의 목적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의 개인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물리환경이 유의수준 5%에서 개인적 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생활만족이 자아수용과 긍정적 대인관계 및 자율성 그리고 개인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학교생활만족이 자아수용과, 환경의 통제 및 삶의 목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교우관계도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자율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다음의 <표 4>와 같다.

이를 통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가정생활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중, 가정생활건강성의 하위요인에서는 유대감의 요인이,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에서는 학교생활이라는 변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학교생활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심리적 안녕감)	B	Beta	R ²	F	t
(Constant)		2.617				22.302
학교생활		.073	.180			1.951*
수업일반	심리적 안녕감	.079	.161	.137	6.429***	1.895
교사관계		.024	.059			.834
교우관계		.068	.149			1.940
물리환경		-.050	-.115			-1.538
학교행사		-.023	-.055			-.720
(Constant)		2.029				11.238
학교생활		.239	.376			4.168***
수업일반	자아수용	.015	.020	.176	8.698***	.238
교사관계		-.005	-.008			-.115
교우관계		.027	.037			.497
물리환경		-.001	-.002			-.027
학교행사		.015	.023			.306
(Constant)		2.736				12.172
학교생활		-.026	-.034			-.357
수업일반	긍정적 대인관계	.110	.004	.071	3.119**	1.369
교사관계		.003	.240			.061
교우관계		.201	-.026			3.018**
물리환경		-.021	-.033			-.340
학교행사		-.025	-.033			-.413
(Constant)		2.734				19.168
학교생활		-.056	-.119			-1.242
수업일반	자율성	.130	.226	.070	3.072**	2.565*
교사관계		.040	.082			1.123
교우관계		.104	.195			2.453*
물리환경		-.062	-.120			-1.544
학교행사		-.059	-.119			-1.506
(Constant)		2.703				18.951
학교생활		.129	.276			2.856**
수업일반	환경에 통제	.012	.020	.053	2.266*	.230
교사관계		-.002	-.005			-.066
교우관계		-.014	-.026			-.319
물리환경		-.040	-.078			-.998
학교행사		-.043	-.088			-1.097
(Constant)		2.596				11.891
학교생활		.153	.209			2.211*
수업일반	삶의 목적	.112	.126	.091	4.069**	1.446
교사관계		.077	.102			1.417
교우관계		.029	.035			.443
물리환경		-.069	-.087			-1.130
학교행사		-.091	-.119			-1.524
(Constant)		2.906				16.397
학교생활		-.004	-.006			-.063
수업일반	개인적 성장	.096	.135	.056	2.400*	1.520
교사관계		.033	.056			.757
교우관계		.058	.089			1.111
물리환경		.110	.174			2.217*
학교행사		.064	.106			1.324

* : p<.05, ** : p<.01, *** : p<.001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밀접한 미시체계로써 가정과 학교의 요인들이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즉, 가정생활건강성 및 학교생활만족도라는, 고등학생들에게 밀접한 생활환경이 그들의 심리적인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가정에서의 시간공유는 청소년들의 긍정적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에서의 구성원간의 유대감은 청소년들의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만족은 환경에 대한 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은 심리적 안녕감의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 및 삶의 목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교우관계는 긍정적인 대인관계 및 자율성에, 학교생활만족의 수업일반의 요인은 고등학생들의 자율성의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의 특별활동 등의 각종 교육시설을 포함하는 물리환경의 요소가 고등학생의 개인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의 환경적인 요인 즉, 가정 및 학교의 요인들이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허승연, 2009)와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 복지프로그램이나 청소년을 위한 개입방안에 있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밀접한 가정 및 학교의 세부 요인들의 개선을 통한 접근법이 간과되지 않고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들을 위한 가정생활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의 요인들을 개선하는 것이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향상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표본추출에 있어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즉, 본 연구가 한 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251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은 분석의 추론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 대상학교가 모두 남학생으로 구성되고, 직접적으로 입시준비를 앞둔 고3

의 학생들은 본 설문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들을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제한점으로 명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객관적 환경요소로써, 각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주거환경 및 학업성취도와 같은 요소들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내적인 자원으로써의 심리적 안녕감이 그들을 둘러싼 청소년들의 가정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연구의 한계로 남아있음을 밝힌다.

참고 문헌

- [1] 강진호, 유형근, 손현동(2009). 마음챙김 명상을 활용한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 프로그램.
- [2] 김영아(2002). 청소년 예절수행 세대전이 및 가정생활 건강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기형(2006).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교적응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4]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 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19-39.
- [5] 김영훈(2008). "청소년의 여가활동참여가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김현미, 방희정, 소유경, 옥 정, 김은경(2006). 한국남녀 대학생 집단에서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1(4), 437-458.
- [7] 김현주(2010).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개발을 통한 청소년 심리적 안녕감 설명변인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김혜원, 김명소(2000).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와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5(1), 27-41.
- [9] 김혜원, 홍미애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14(2), 269-297.
- [10] 민경미, 송현중(2004). 고등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정서 표현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1, 35-51.
- [11] 류정희 · 이명자 (2007).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그 구조 및 주관적 안녕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4(1), 55-77.
- [12] 송진영(2009). 중년 취업남성의 다중역할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 59-81.
- [13]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2005). 삶의 의미와 정서조절양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7(4), 1035-1057.
- [14] 신정인, 강영결, 김영호(2010). 대학생의 대상관계가 분리개별화,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10), 189-212.
- [15] 유주연, 박 경 (2010). 자기애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4), 1-23.
- [16] 이정민, 이유리(2010).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간리학회지, 28(3), 13-26.
- [17] 이현주, 이미나, 최인수 (2008).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K-WBSA)의 타당화 및 삶의 질 분석. 교육심리연구, 22(1), 301-315.
- [18] 정 민, 노안영(2008). 대학생의 외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7(2), 373-387.
- [19] 조명한, 차경호(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집문당.
- [20] 주현숙, 방희정 (2006). 청소년의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284-285.
- [21] 차경호(2004).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321-337.
- [22] 허승연(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3] 홍봉선, 남미애(2010).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19-42.
- [24] 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1995) 교육학사전 대한교육연합회.
- [25] Ahrens, C. J., and Ryff, C. D. (2006). *Multiple Roles and Well-being: Socio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Moderators*. Springer Science Business Media, Inc.

- [26] Diener, E., Suh, E. M., Smith, H., & Shao, L.(1995). Nation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Why do they occur?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7-32.
- [27] Jahoda, M. (1959). *Current concepts of positive mental health*. New York: Basic Books.
- [28] McDowell, I., & Newell, C.(1990).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s*. Oxford.
- [29] Park, N.(2004).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 [30] Randall, T. D.(1995). *Assessing Family Strengths Using the Family Profile: Study for Validate and Evaluate Constructs Across Four Models of Family Functioning*. Utah State University. M. S.
- [31]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an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32]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33] Ryff, C. D. & Singer, B. (1996). Psychological well-being: Meaning,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research.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65, 14-23.
- [34] Ryff, C. D. & Singer, B.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1), 1-28.
- [35] Yoshikawa H.(1999). Welfare Dynamics, Support Service, Mothers' Earning, and Chil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0(3), 779-801.

김 영 미



- 1986년 2월 : 상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1988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행정학석사)
- 1993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행정학박사)
- 1994년 3월~현재 :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2004년 5월~2007년 8월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 전문 위원
- 2012년 2월~2013년 2월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회장
- 관심분야 : 정보정책, 전자정부, e-거버넌스
- E-Mail : young@smu.ac.kr

곽 미 정



- 1997년 3월 : 한성대학교 정보공학과 재학
- 2010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사회학 석사)
- 2012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 2013년 현재 : 상명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 2011년 1월~현재 : 한국사회복지개발원 수석연구원
- 2012년 2월~2013년 2월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사무국장
- 2012년 3월~현재 : 새롬고시 사회복지학 강의
- 관심분야 : 청소년분야, 노인분야 및 정책
- E-Mail : jina777077@naver.com